

#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 의복과 장신구를 중심으로 —

동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문 광 희

## 目 次

I. 머리말	2. 자료의 정의와 분석
II. 榮花物語 당시의 복식양상과 美의식	IV. 맺는말
III. 복식자료의 분석	참고문헌
1. 자료의 발해	ABSTRACT

## I. 머리말

「榮花物語(에이가모노가따리)」는 A.D. 1086년부터 약 20년 동안 쓰여진 일본의 역사소설로서, 宇多(우다, 887~897), 醍醐(다이고, 897~919)천황 때부터 堀河(호리카와, 1086~1107)천황 때까지 15대의 천황, 200년간의 궁정 귀족사회의 다채로운 생활사가 묘사되어 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藤原道長(후지와라 미치나가)의 아내인 倫子(린시)에게 시중들었던 赤染衛門(아카조메 에몬)의 作이라고 전해지며, 平安시대(794~1185)가 배경이 되는 궁중생활의 묘사 속에는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당시의 복식문화가 구체적이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일본의 고대 문학작품을 통한 복식사의 연구는 일본에서는 이미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문학작품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찍이 한국복식의 영향 아래서 일본복식이 형성되었고, 역사성이 있는 문학작품은 사실성

과 순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복식자료가 풍부한 경우 고대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일본복식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한국인의 시각에서의 연구는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본 작품과 同時代인 高麗前期의 복식은 신라의 복식을 기반으로 발달되었고, 본 작품의 대상시기인 平安시대는 한반도와 교류관계가 많았던 奈良시대의 복식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므로, 平安朝 복식의 연구는 고려 전기의 복식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榮花物語에 나타난 복식 자료를 통하여 10세기말, 11세기 초의 일본복식의 상황을 면밀히 고찰해 보고, 나아가 그것을 한국복식사의 연구에 도움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榮花物語에 대한 연구는 裝飾經의 측면에서는 상세히 이루어져 있으나, 복식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으며,<sup>1)</sup> 한국에서 연구된 바는 없다. 본 연구자는 이에 앞서 枕草子와 源氏物語의 복식자료에 대해 연구하였고,<sup>2)</sup> 본 연구는 그

\* 본 논문은 동의대 학술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짐.

1) 榮花物語と裝飾經, 日本の美術7, 1989, p.278.

中山 昌, 文學にみる衣生活シリーズ, 榮花物語の服飾, 衣生活107, 1976.

연속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榮花物語에서 발췌된 복식자료는 총 154가지이며, 이 중에는 의복류와 장신구가 69가지, 염색과 색채 58가지, 직물과 문양 27가지인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방대함으로 69가지의 의복과 장신구에 대하여 연구 분석한다. 연구에 사용된 「榮花物語」책은 일본 岩波書店(昭和 40)에서 발간된 것을 한국에서 영인본으로 재출간한 것이다.

## II. 榮花物語 당시의 복식양상과 美의식

榮花物語는 宇多천황으로부터 堀河천황 때까지의 궁정사회를 묘사한 역사소설이므로 시대적으로는 平安시대, 더 정확하게는 藤原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平安시대는 연대적으로는 杭武帝 延曆13년(794) 도읍을 平安京으로 옮긴 이후 平家が 멸망하기(1185)까지를 말하며, 平安시대 후기를 특별히 藤原시대라 하는데, 그 경계는 일반적으로 遣唐使가 폐지되는 때(894)로 잡는다.

藤原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藤原氏 一門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새로운 궁정·귀족사회를 출현시켰기 때문이며,<sup>3)</sup> 궁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은 풍부한 재력과 한가한 여유로서 유희적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복식 또한 화려하고 격조있는 美를 창출하였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平安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唐風에서 벗어나 白國化(日本化)로 가는 과정으로 특징지우고 있으며, 특히 그 후기인 藤原시대는 이전의 모든 문화가 융합되어 일본풍의 스타일이 체계화되어 문학, 건축, 미술 등 모든 분야에서 國風 형성을 완성한 시대로 보고 있다.<sup>4)</sup> 이러한 견해는 고대의 일본복식이 繩文시대의 橫幅衣와 無縫衣에서, 古墳시대는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북방 胡族의 衣襟, 衣裳 양식이 기본이 되어 있었고, 奈良시대에 들어서면 衣服의 服制化가 이루어지는데, 일본의 학자들이 이 시대를 반도로부터의 북방문화 단절, 직접적인 대륙과의 교섭이라는 소위 唐風の 영향기<sup>5)</sup>로만 설명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奈良시대의 일본 服制는 683년에 제정된 盤領의 袍袴制였고, 반령의 袍는 서역의 등근 깃의 의복이 기본이 되면서,<sup>6)</sup> 중국에서는 北魏의 前身인 代(A.D. 315~376) 때 中國 衣冠의 혼효 속에서 도입되어 北魏, 周, 隋, 唐으로 인습되어 왔으며,<sup>7)</sup> 唐代에 와서도 위구르나 터어키 등을 중심으로 한 西胡의 복식 영향이 컸었고,<sup>8)</sup> 奈良시대를 즈음하여서는 한반도가 일본보다 앞서서 唐의 服制를 받아들이면서, 당시 여러 측면에서 한반도는 일본에게 문화를 전수시키는 위치에 놓여 있었으므로,<sup>9)</sup> 엄밀히는 西域風, 唐風, 韓半島風 등이 혼

2)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복식 28호, 1996.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1호, 1997.

3) 元井 能, 日本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1981, p.21.

4) 元井 能, 바로 앞책, p.21

河崎實美, 井上 章, 日本服飾美術史, 東京, 家政教育史, 1982, p.48.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1984. p.40.

青木英夫, 服裝史, 酒井書店, 1987, p.16.

5) 猪熊兼繁, 古代の服飾, 東京, 至文堂, 1962, p.122.

6) 서아시아 유프라테스강 연안의 팔미라 신전의 벽화, 돈황벽화, 그리고 김동욱, 유송옥의 諸說을 기초자료로서 볼 때 盤領袍의 서역 유입설은 타당성이 있다(문광희, 韓·中 圓領의 比較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pp.10~12).

7) 문광희, 바로 앞논문, 1987, p.21.

8) 唐에서 盤領袍에 문양의 장식, 靺鞨七事の 패용, 깃을 접어 입는 反領法 등 西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문광희, 바로 앞논문, p.19).

합되면서 일본 복식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平安시대 이후, 즉 鎌倉시대(1186~1391)와 室町시대(1392~1573)의 복식은 奈良시대에 형성되었던 唐風양식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로부터 유입되어 온 胡風양식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발전되어 후일 일본의 和服가 되므로,<sup>10)</sup> 平安시대를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도 없거니와, 이 시기를 일본풍 형성기 내지는 완성기로 보는 것은 재고되어야만 할 것이다.

단지 平安시대 넓고 큰 의복을 겹겹이 입어 특수한 실루엣을 형성했던 점, 혹은 본장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襲色目 등 색채문화가 고도로 발달되었던 점,<sup>11)</sup> 그 시대에 강하게 표현되는 불교 사상 등은 당시 일본복식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점 역시 그 당시 주변 민족에게도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었는지 비교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차후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시대의 복식양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遣唐使의 폐지, 唐文化로부터의 독립, 國風の 출현 등 시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丹澤 巧는 일본인이 平安시대의 복식양식의 변화를 遣唐使의 폐지라고 하는 시대상에서 도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시대상이 옷의 양식에 변

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의복 형태의 특수성 속에서 옷의 양식은 찾아져야 하며, 의복 형태의 특수성을 결정짓는 것은 시대상이 아니라 價値觀 즉 意識의 문제라고 하였다. 즉 의복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그 당시의 美的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며, 平安시대의 服飾美가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여 그 당시의 복식양식이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시대 복식의 美的식은 藤原道長(966~1027)가 번영을 누렸던 시기에는 특별히 과장된 의복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絹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멋을 살린 軟裝束인데, 線은 軟함을 의미하는 曲線構成이 아니고 直線構成이다. 그런데 平安시대에 느끼는 직선의 감정은 硬하고, 엄숙하고, 중후하고, 불가사의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며 공간을 메워 버리는 답답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밖으로 빠져 나갈려고 하는 가벼움이 내장되어 있어 간결하고 맑다고 해도 좋으며, 간결한 직선의 구성은 곡선의 지향이 없어도 부드러움 혹은 연합과 연결된다고 하였다.<sup>12)</sup>

이상에서 본다면 平安시대의 복식의 양상은 奈良시대 때부터 얽히어졌던 정치적 문화적 시대상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간결한 직선으로 구성되는 軟裝束이 주된 미의식으로 작용되면서 이전의 복식형태가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9)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연구, 앞논문, pp.50~52.

10) 山邊知行은 平安시대의 褙는 후일 키모노의 근본이 되는데, 일본에는 크게 중국풍 唐式의 복식 흐름을 따르는 궁정양식과 한반도를 통해 유입되어 온 대륙적 胡服양식의 두 흐름이 있다. 平安前期에는 前代의 唐風을 이어받아 위엄과 권위를 지키면서 여러겹의 옷을 길고 크게 입었으나, 이후 鎌倉시대에 들어서면 귀족계급이 쇠하고 武人들이 정권을 잡음과 동시에 복식의 큰 흐름은 중국적 귀족양식에서 한반도적인 武家, 庶民양식으로 바뀌어져 간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室町시대(1392~1573)에는 武家들의 다름으로 일본의 귀족계급은 완전히 몰락하고 귀족들의 복장은 간소화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의 복장이 소매와 옷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袴와 腰巻이 제거되어 상류층의 간소화된 의복과 만나게 되는데, 근대 일본 의복 형성의 모체는 결코 중국풍의 것이 아니라, 한반도로부터 유입되어 와서 武家 庶民들 사이에 끈임없이 전수되어 온 호복양식이라고 하였다(山邊知行, 日本の服裝史における日韓の關係について, 한국복식7호, 1989, pp.163~166).

11)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p.161~166.

12) 丹澤 巧, 服飾の中心にある美的感情, 東京, 源流社, 1990. pp.22~25.

그 좋은 예로서 平安期の 唐衣는 奈良期の 背子인데 곡선을 부정하고 직선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褙도 垂領의 앞여밈이나 소매의 모양 등이 직선으로 강조되어 있고, 허리 전체를 들렀던 裳는 뒷면에만 늘어뜨려 직선적인 병풍을 두르고 있는 듯하며, 직물 자체에도 직선이나 평면을 강조하기 위해 당겨서 펼치는 방법이 취해졌다. 이와 같은 양식은 건축, 御簾, 几帳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있다. 그리고 10세기 전반부터 11세기 후반까지는 儀式, 觸穢, 禁忌 등을 매우 중요시 하였는데, 이때의 의복 개념은 단순히 입는 것이라는 것 위에 緣故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였고, 家賚처럼 애장하는 의복인 경우 그것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는 일종의 靈的인 힘을 부여하고 있었다.<sup>13)</sup> 뿐만 아니라 儀禮式을 중시함에 따라서 행사나 遊樂에 따라 의복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입는 등 격식을 갖춘 복식문화가 형성되었고, 의식에 맞추어 명문가의 의복을 차용하는 일도 성행하였다.<sup>14)</sup>

榮花物語가 쓰여진 平安시대는 남녀의 正略裝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표 1>과 같이 된다.<sup>15)</sup>

<표 1> 平安시대 남녀의 正略裝

구분		의복명	의복의구성
남자	正裝	束帶	冠, 袍, 半臂, 下襲과 裾, 袷, 單, 表袴, 大口袴, 石帶, 笏, 檜扇, 帖紙, 襪, 靴, 魚袋, 太刀.
	略裝	直衣, 狩衣, 水干	束帶에서 冠 대신에 烏帽子, 袍 대신에 直衣, 狩衣, 水干(狹義) 착용, 笏 대신에 扇, 表袴 대신에 指貫 착용.
여자	正裝	唐衣裳	唐衣, 表着, 打衣, 袿, 單, 裳, 打袴, 檜扇, 帖紙, 襪.
	略裝	小袿, 細長	唐衣裳에서 唐衣, 裳을 제외시키고 小袿, 細長(狹義) 착용.

이 중 남자의 정장인 束帶는 奈良시대의 朝服이 변하여 禮服化된 것으로 袍袴形式이며, 推古11년(603) 聖德太子에 의한 官位の 制定이 시효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sup>16)</sup> 束帶는 처음에는 元日の 朝賀, 即位式 같은 大儀에 親王이나 5位 이상의 官人이 착용하였으나, 律令政治가 점차 축소되어 朝賀 등이 쇠퇴되면서 一條天皇의 正曆4년(993) 후

에는 朝賀用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즉위식에만 착용하였는데, 寬弘8년(1011) 즉위식에 착용한 三條天皇의 禮服 즉 束帶의 구성을 보면, 大口袴, 袷, 表袴는 일반적인 束帶用이었고, 位色の 小袖와 大袖는 스스로 만들었으며, 玉冠(禮冠), 綬, 玉佩, 褶裳 등은 藤原道長の 주선으로 山科寺(興福寺)에서 차용한 것이었는데, 禮冠의 장식 등은 모두 고쳐서 사용하였다.<sup>17)</sup> 여자의 正裝인 唐衣裳은 속칭 十二單라고도 하며,<sup>18)</sup> 晴裝束로 服色美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袿에 있어서 색을 달리하면서 20枚까지 겹쳐 입기도 하여 長保3년(1001)에는 奢侈美裝을 금지시켜 5枚로 한정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였다.<sup>19)</sup> 여자 略裝은 正裝에서 唐衣와

裳을 뺀 차림 위에 小袿, 細長 등을 表衣로 입어 가벼운 禮를 갖춘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면 榮花物語 당시의 복식양식은 이전, 이후 시대의 복식양상으로 보아 자국화의 발로 내지는 완성의 시기로 정의하기 보다는 지리적, 문화적 유입 경로를 통해 들어온 소위 西域風, 唐風, 韓半島風을 변용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

13) 黒板伸夫, 平安王朝の宮廷社會, 吉川弘文館, 1995, pp.253~260, p.294.

14) 北村哲郎, 앞책, p.51.

15)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49 참조.

16) 일본에서 朝服이란 말이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天武14년(685) 7월 庚午條에 「勅定明倍已下進位已上之朝服色...」이며, 이 때 唐風의 복장인 소위 衣袴形式의 의복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본다(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平文社, p.48).

17) 黒板伸夫, 앞책, pp.240~241.

18) 十二單이라고 한 것은 江戸시대 이후 붙여진 속칭이고, 정확하게는 唐衣裳이며 十二單은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명칭은 아니다(元井能, 앞책, p.28).

19) 青木英夫, 앞책, p.26.

하며, 이것은鎌倉시대 이후 급격히 소멸된 채 오히려 한반도적 호속양식이 일본복식의 주된 맥을 형성하면서 발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의美意識은軟裝束이되 부드러움이 내재된 가벼운直線美, 그리고儀式, 觸穢, 禁忌 등을 중요시 하여緣故의 의미를 크게 부여한 점, 격식을 갖춘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남녀의 복제가正略裝으로서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었다.

### Ⅲ. 복식자료의 분석

#### 1. 자료의 발취

발취된 의복과 장신구 69가지에 대해서 <표 2>와 같이外衣, 內衣, 頭衣, 足衣, 裝身具, 그리고 그 소속이 불분명하거나 특수한 의미, 장식적 의미 등에서 붙여진 명칭들은其他로 하여 세분화시켰다. 이들 중에는 이미 탈고된枕草子와源氏物語

語에서 정의된 자료들이 많았으므로榮花物語에만 있는 종류와 두 책에서 이미 정의되었던 종류로 다시 양분화시켰다. 참고로 전술된 두 책에서의 의복과 장신구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3>, <표 4>와 같다.<sup>20)</sup>

#### 2. 자료의 정의와 분석

##### 1) 既定義된 자료의 요약

榮花物語에 나오는 자료 중枕草子와源氏物語에서 이미 정의된 자료들은 동질적인 것끼리 묶어서 요약 정리하였다.<sup>21)</sup>

冠, 袍, 表袴, 袷, 單衣, 下襪: 남자正裝인束帶의 기본구성에 속하는 명칭.

唐衣, 裳, 袴, 表着(著), 打衣(打物), 單衣, 袿: 여자正裝인唐衣裳의 기본구성에 속하는 명칭.

烏帽子, 直衣, 狩衣, 襖, 指貫: 남자略裝의 기본구성에 속하는 명칭.

細長, 小袿: 여자略禮裝의 기본구성에 속하는

<표 2> 『榮花物語』에 나타난 의복과 장신구

구분	榮花物語의 의복과 장신구 종류		가지수
	榮花物語에만 있는 종류	枕草子, 源氏物語와 중복되는 종류	
外衣	打袴, 小褂, 絲遊의 裳, 平唐衣, 摺唐衣, 松葉重, 湯卷, 奴袴, 墨染, 引倍木, 裳.	裳, 直衣, 袴, 狩衣, 指貫, 赤衣, 藤衣, 唐衣, 表着(著), 法衣, 小袿, 表袴, 細長, 褶, 袍, 袷袴, 淨衣, 綠衫, 單襪, 摺衣, 摺裳.	32
內衣		袷, 單衣, 袿, 汗衫, 打衣(打物), 襖, 下襪, 單襪.	8
頭衣	笠, 插櫛, 鬘, 笄.	冠, 烏帽子, 櫛, 釵子.	8
足衣	草履, 蘭履.	沓, 深沓, 足駄, 履子.	6
裝身具	傘, 大傘, 衣笠, 劍.	扇, 蝴蝶扇, 檜扇.	7
其他	中陪, 金屬으로 羅銅합, 뾰뾰한 袴에 金屬합, 腰差.	袷, 大袿, 裙帶, 領布.	8

20) 枕草子の 복식자료는 外衣, 內衣, 頭衣, 足衣 그리고 裝身具로 세분화시켰으나(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源氏物語를 연구할 때는 外衣, 內衣를 합친 것이 41가지인데 비하여 頭衣가 5가지, 足衣가 1가지, 그리고 裝身具가 3가지로서 적은 畧이 발취되었으므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작성했었다(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본 연구에서는 榮花物語의 자료 구성상 源氏物語의 자료를 세분화시켜 작성하였다.

21)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표 3〉『枕草子』에 나타난 의복과 장신구

구분	종 류
外衣	袍, 直衣, 狩衣, 水干, 唐衣, 小袷, 細長, 汗衫, 帷, 綠衫, 赤衣, 裘, 袴, 表袴, 單袴, 指貫, 裳, 袴裝束.
內衣	襖, 和, 袷, 半臂, 下襲, 白襲, 單襲, 單衣(單).
頭衣	冠, (長)烏帽子.
足衣	履, 沓, 深沓, 半靴, 屐子, 足駄, 襪.
裝身具	釵子, 刺櫛, 扇, 檜扇, 枝扇, 細太刀, 笏, 領巾, 裙帶.

〈표 4〉『源氏物語』에 나타난 의복과 장신구

구분	종 류
外衣	褶, 直衣, 薄衣, 裳, 指貫, 狩衣, 細長, 袍, 表袴, 汗衫, 袴裝束, 薄墨衣, 袴, 藤衣, 輕服, 裘, 唐衣, 袈裟, 綿衣, 赤衣, 袷, 黑貂의 皮衣, 表着, 法衣, 淨衣, 摺衣, 摺裳, 下襲, 小袷.
內衣	打衣, 和, 襖, 三重襲, 五重襲, 白襲, 單襲, 單衣(單), 袷.
頭衣	烏帽子, 尼髮, 釵, 櫛, 玉簪.
足衣	淺沓.
裝身具	蝙蝠扇, 太刀, 班犀의 帶.
其他	大袷, 出衣, 袴裝束.

명칭.

藤衣, 法衣, 袈裟, 淨衣 : 僧服 및 喪服.

單襲 : 홀로 된 下襲.

汗衫 : 純로 만든 上衣.

褶 : 지위가 낮은 자가 입는 裳, 혹은 上裳으로

서 裳 위에서 하반신을 감싸는 것.

裙帶 : 치마의 양 끝에 장식으로 내려진 끈.

領巾 : 어깨에 두르는 여자의 장식 수건.

櫛, 釵子 : 여자의 머리 장신구, 빗과 머리꽃이.

沓, 深沓, 足駄, 屐子 : 남녀의 신 종류.

檜扇, 扇, 蝙蝠扇 : 檜扇은 남녀의 正裝, 扇은 남자의 略裝에 사용하는 장식용 부채이고, 蝙蝠扇은 여름용 부채.

赤衣와 綠衫 : 位階에 따른 官吏의 옷.

摺衣, 摺裳 : 摺染한 上衣와 下衣.

大袷 : 下賜品の 의미.

이 이외에 衾는 겹옷이되 榮花物語 卷8에 기술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眞綿(마와따 : 풀솜)를 넣어 겹으로 만든 袷(우치키)를 의미하며 당시 4位 이상이 殿上에서 입었던 옷이었다.<sup>22)</sup> 그에 비해 5位는 보통의 袷, 6位는 單衣였다.

2) 榮花物語에만 나오는 자료의 정의

(1) 打袴(우치바카마) : 女房裝束 구성의 하나. 다듬질을 하여 광택을 낸 바지. 직물은 신분에 따라 綾 또는 平絹으로 表裏同質이고 色은 紅을 주로 했다.<sup>23)</sup> 榮花物語 卷36에 繡物에도 打袴를 한 것이 있다고 하므로,<sup>24)</sup> 자수한 옷에도 다듬질하여 광택을 내어 입었다. 다듬질한 옷은 일반적으로 통틀어 打衣 혹은 衣라고 불렀는데, 紅을 많이 사용했으므로 「紅」이라고 할 경우 打衣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았고, 平安시대 당시에는 궁중에 打殿이

22) 榮花物語, 卷8, 上 p.265, 注47, 注48.

23) 廣辭苑, うちばかま.

24) 榮花物語, 卷36, 下 p.441.

25) 中川 孝, 十二單衣 復原-表着, 打衣, 五衣一, 實踐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 1983, p.77.

있었다.<sup>25)</sup> 한편 다듬질의 경우 광택을 내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당시 美의식의 기본이었던 直線美 추구에서 직물을 뽀뽀하게 펴고자 하는 의도도 많았던 것 같다.<sup>26)</sup>

(2) 小褂(코우치기) : 여성의 禮服으로 唐衣 대신에 表着 위에 입는 옷이다. 小褂(코우치기)가 여성 正裝에서 唐衣, 裳을 제외한 略裝이므로 小褂보다는 禮를 갖춘 복장이다. 한편 略裝의 길옷인 小褂나 小褂를 벗고 襖袴도 생략한 衣袴 차림이나 衣마저 생략하고 單과 袴만을 입는 單袴는 그 당시「벌거숭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sup>27)</sup> 이것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禮를 갖추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당시 禮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絲遊(이또유우)의 裳(모) : 絲遊는 絲遊結의 略稱으로 帳의 장식으로서 紐의 여러 곳을 꽃 모양으로 묶으면서 늘어뜨려 장식으로 삼는 것 또는 그 끈(緒)을 말한다.<sup>28)</sup> 이것은 설명으로 보아 매듭으로 장식한 끈인 것 같고 따라서 絲遊의 裳는 매듭장식을 늘어뜨린 裳을 의미한다.

(4) 平唐衣(히라카라기누), 摺唐衣(스리카라기누) : 平唐衣는 平絹으로 만든 唐衣를 의미하고, 摺唐衣는 摺染로 문양을 넣은 唐衣를 말한다. 摺染는 平板에 편 布帛 위에 型紙를 놓고 그 위에 염료액을 물린 솔로서 여러 가지 색을 문질러 넣어서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平安시대에 유행한

염색법이였다.

(5) 松葉重(마츠노하 카사네) : 바탕은 회고 문양은 청색인 천으로 만든 唐衣와 청색 바탕에 二重의 浮織物로서 松枝를 짜 낸 옷의 속에 입는 청색의 打衣와 청색의 袴, 이것은 모두 청색이 겹쳐져 있으므로 松葉重라 한 것 같다.<sup>29)</sup> 한편 枕草子에 松葉色이 나오는데, 그 注에 表는 蒨黃, 裏는 紫인 松重인 것 같다 라하고 있다.<sup>30)</sup>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명칭은 아닌 것 같다.

(6) 湯卷(유마키) : 귀인이 목욕할 때 몸에 두르거나 시중드는 자가 자신의 옷이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 두르는 것으로, 平安시대 주로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白色 生絹으로 만들었으나 후일 무늬있는 것도 사용하였다.<sup>31)</sup>

(7) 奴袴(누바카마) : 指貫의 별칭이다.<sup>32)</sup> 指貫는 衣冠, 直衣, 狩衣 등 남자의 略裝時에 착용하는 폭이 넓은 袴의 일종으로서 아랫자락에 끈(括緒)이 있어 발목에서 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33)</sup>

(8) 墨染(쿠로조메) : 원래는 喪服, 僧服用으로 사용되는 검은 暗色이므로 源氏物語에서는 색상명으로 분류하였다.<sup>34)</sup> 그러나 榮花物語에서는 墨染 자체가 의복명으로서 喪服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sup>35)</sup>

(9) 引倍木(히헤기) : 여름에 입는 홑옷으로 平安시대에는 裵(아즈메)의 안감을 손질하여 만들었다.<sup>36)</sup> 그런데 榮花物語 卷23에는 紗 등으로 안

26) 丹澤 巧, 앞책, p.24.

27) 鷹司繪子, 服裝文化史, 東京, 朝倉書店, 1984, p.38.

28) 古語辭典, いとゆふ.

29) 榮花物語, 卷36, 下 p.461, 注25 참조.

30) 枕草子, 卷下, p.211, 注12.

31) 榮花物語, 上 p.516. 補387.

古語辭典, ゆまき.

32) 榮花物語, 卷23, 下 p.166, 注10.

33)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55.

34)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163.

35) 榮花物語, 卷1, 上 p.46, 注1.

卷29, 下 p.315, 注38.

卷38, 下 p.506, 注4.

36) 廣辭苑, ひへぎ.

(裏)을 댄 異體의 것으로 걸은 白 안은 靑으로 했다고 한다<sup>37)</sup>고 있으므로, 원래는 안감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만 특별히 겹으로 한 것 같다.

(10) 蓑(미노) : 도롱이, 띠풀을 엮어 만든 雨裝.

(11) 中陪(나카베) : 中倍, 中重라고도 쓰며 平安 무렵 公家의 裝束이나 几帳의 바탕천 등에 얇은 綾의 겹친 색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表裏 사이에 다른 색의 絹을 한겹 더 넣는 것이다. 江戸시대 이후가 되면 小袷의 袖口, 襟, 裾 등의 걸감과 안감의 박음질한 부분에 색이 다른 좁고 긴 천 끼워 넣어 장식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시대가 되면 안감은 길게, 걸감은 짧게 하여 안감이 걸감 쪽으로 보이게끔 박음질하였는데, 박음질한 사이에 다른 색의 천을 한겹 끼워서 장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카베라고도 한다.<sup>38)</sup>

(12) 金屬(카네)로 羅細함 : 金銀의 얇은 판을 袖口에 붙이기도 하고, 靑貝<sup>39)</sup>를 잘라서 꿰어 붙이기도 한 것<sup>40)</sup>으로 옷을 장식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13) 뺏뺏한 袴에 金屬함 : 바지를 풀(糊)로서 뺏뺏하게 편 위에 여러 가지의 무늬로 장식한 金銀을 박음질하여 붙인 것으로,<sup>41)</sup> 위와 비슷한 옷의 장식법이다. 한편 옷에 풀을 하는 것은 옷에 광택을 내기 위함이었는데, 平安 당시에는 다듬이질과 함께 매우 유행하였다.

(14) 腰差(코시자시) : 祝儀로서 받은 卷絹을

말한다. 당시에는 拜領한 卷絹을 옆구리에 끼고 퇴출하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腰差라고 했다.<sup>42)</sup> 한편 平安시대에는 公私나 개인의 贈答인 경우를 포함하여 祿物(被物)인 경우 衣服, 絹, 布類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布는 돈과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美的인 면에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적합하였기 때문이다.<sup>43)</sup>

(15) 笠(카사) : 비, 눈, 일광을 가리기 위해 외출시 머리에 쓰는 일반적인 샓갓. 남녀 공용이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笠 대신에 의의 끈을 접어 무릎길이로 걷어 올리고 머리에 모시풀로 만든 얇은 천을 드리워 쓰는 경우도 있었으며, 衣 자체를 머리에 쓰는 일도 있었다. 이것을 衣被라고 했는데,<sup>44)</sup> 笠 보다 한층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장식법이었던 것 같다.

(16) 傘(카사), 大傘(오오가사), 衣笠(키누가사) : 자루가 달린 笠, 즉 비, 눈, 일광을 가리기 위해 머리 위에 드는 것이며, 大傘은 자루가 길고 큰 唐傘, 唐笠을 말하고, 衣笠는 絹傘 또는 蓋라고도 쓰며 재료가 絹이나 직물로 된 것을 말하는데,<sup>45)</sup> (그림 1), 이 경우 笠이라 하여도 자루가 달린 것이어서 일반적인 개념과 차이가 있다. 傘 종류는 주로 시종이 뒤에서 받쳐준다.

(17) 插櫛(사시구시) : 刺櫛와 같으며 여자 머리에 장식용으로 꽂는 빗이다. 일본의 문헌에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奈良시대이나,<sup>46)</sup> 上古시

37) 榮花物語, 卷23, 下 p.159, 注32.

38) 服飾辭典, なかべ, おめり, ふき.

廣辭苑, なかべ.

39) 전복 껍질 같은 것을 문질러서 만든 것으로 단추 등을 만드는데도 쓰임.

40) 榮花物語, 卷36, 下 p.441, 注46.

41) 榮花物語, 卷36, 下 p.441, 注49.

42) 榮花物語, 卷8, 上 p.266, 注23.

卷19, 下 p.107, 注30.

43) 黑板伸夫, 앞책, p.239.

被物を 어깨에 걸치고 내려오는 장면은 紫式部日記繪卷, 敦成親王, 御産養에도 보인다.

44) 鷹司禰子, 앞책, p.38.

45) 榮花物語, 卷19, 下 p.109, 註20.

46) 關根眞隆, 앞책, p.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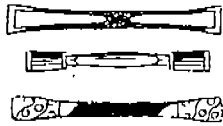


대의 植輪와 미즈라에도 櫛의 모습을 볼 수 있다.<sup>47)</sup>

(18) 髻(카츠라) : 3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菟草랑 꽃 등을 머리에 꽂아 장식으로 하는 것. 둘째는 머리카락을 땡거나 묶어 놓은 것으로 두발에 더하여 사용하는 것, 셋째는 모발로서 각종의 鬢形을 미리 만들어 분장 때 사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sup>48)</sup>



(그림 1) 廣辭苑 p.542



(그림 2) 廣辭苑 p.729

(19) 笄(코오가이) : 머리를 올려 뿔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늘고 긴 도구로서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었다. 비녀 종류이다(그림 2).

(20) 草履(와라우즈)<sup>49)</sup> : 짚(藁)으로 엮어 만든 운두가 얇은 신.

(21) 蘭履(이구츠) : 골풀(蘭草)로서 짜고 종이로 끈을 만들어 단 草履.

(22) 劔(하카시) : 佩刀이다. 그러나 榮花物語에서는 新生의 皇子에게 皇帝가 사여하는 호신용의 칼을 의미할 때가 많았다.<sup>50)</sup> 또 平安 당시에는 劔을 貸借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劔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알려진 名劔을 빌려서 사용함으로써 궁정에서의 지위나 유력한 인간관계를 과시하는 것으로서, 상징적이고 명예적인 문제였다.<sup>51)</sup> 동일한 방법으로 착용된 것에 石帶가 있다.

이상에서 보면, 남자의 正略裝의 명칭들로서는 冠, 表袴, 袍, 袷, 單衣, 下襲, 烏帽子, 直衣, 狩衣, 襖, 指貫(奴袴), 扇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枕草子, 源氏物語에서 이미 설명된 것들이며, 여자의 正略裝이면서 이미 정의된 것들로는 唐衣, 裳, 袴, 表着(著), 打衣(打物), 單衣, 柱, 蝙蝠扇, 檜扇, 細長, 小袿가 있었는데, 이 중 唐衣가 平唐衣, 摺唐衣, 松葉襲로 직물이나 염색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摺唐衣, 松葉襲는 摺衣, 摺裳와 함께 당시 摺染가 의복의 문양장식으로 많이 활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여자 略裝의 하나로 小袿가 있었는데 細長, 小袿와 함께 가벼운 예를 갖추는 의복의 수가 많아, 이것은 당시 예의범절을 중요시 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榮花物語에 남녀 正略裝 의복구성의 대부분이 기술되고 있는 것은, 榮花物語 역시 당시의 시대상을 확실하게 반영해 주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僧服 및 喪服의 명칭으로는 藤衣, 法衣, 袈裟, 淨衣, 墨染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당시의 懷色론의 유행과 불교 정토사상의 기반 위에서 쓰여졌던 源氏物語<sup>52)</sup>에서 이미 정의된 것임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打衣, 打物, 打袴 등으로 보아 다듬질과 풀(糊)로서 광택을 내는 등 옷감 손질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 위에 金銀이나 靑貝 등을 이용해 소매부분 등을 멋스럽게 장식하기도 했으며, 中陪를 이용한 가장자리 장식, 매듭을 이용한 치마나 주름장식, 領巾을 이용한 멧 등 화려함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湯卷을 통한 목욕문화, 腰差를 통한 祿物의 패용방법 등은 당

47) 高橋健自, 歷世服飾圖說, 東京, 衆精堂, 1934, p.8.

48) 廣辭苑, かずら.

49) 요즈음에는 조오리라고 발음하나 그 당시에는 와라우즈로 발음하였음(榮花物語, 권26, 下, p.218).

50) 榮花物語, 卷2, 上 p.80, 注18.

卷8, 上 p.262, 注23.

卷8, 上 p.269, 注39 등 다수 있음.

51) 黑板仲夫, 앞책, p.293.

52)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앞논문, pp.163~164 참조.

시의 멋스런 운치를 나타낸 것이고, 劍의 차용 등은 의복을 단순히 입는 것이라는 사고 위에 그 緣故를 중요시 했던 사회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머리 장식으로는 櫛, 釵子, 笄 등이 고루 발달되면서 插櫛, 鬢 등의 방법으로 다채롭게 장식하였고, 신발류로는 沓, 深沓, 足駄, 履子, 草履, 藪履 등이 있었는데, 특히 足駄, 履子, 藪履은 나막신 종류로 비올 때 신는 신이었고, 笠과 蓑를 포함한 傘 종류, 雨裝도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그외 속옷인 汗衫, 홑옷류인 單襲, 홑옷이지만 겹옷으로도 사용한 引倍木, 겹옷인 袷, 여자의 허리 부위에 두르는 上裳인 褶, 그리고 位階에 따른 官服인 赤衣와 綠衫이 있었고, 치마의 장식 끈인 裙帶가 있었으며, 하사품의 의미로 大袴가 있었다.

## V. 맺는말

본 연구는 A.D. 1086년부터 약 20년 동안 쓰여진 일본의 역사소설 榮花物語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 중에 기술되어 있는 의복과 장신구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것이다. 소설의 배경은 887부터 1107년 정도까지로서 일본의 平安시대(794~1185)에 속하며,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는 모두 69가지이다.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平安시대의 사회적 배경은 自國化의 시기로 정의되기 보다는 이전부터 유입되었던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여러나라의 복식을 변용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의 복식양상은 直線美이 되 가깝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軟裝束이라는 미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平安 후기에는 儀式, 触穢, 禁忌 등을 중요시 함으로써 의복을 착용하는 것 이상으로 緣故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2) 平安시대의 복식제도는 남녀 모두가 正 略裝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는데 榮花物語에는 이들 正 略裝의 복식명이 대부분 기술되어 있었으므로, 본 자료는 당시의 현실성을 높게 반영한 것이다.

3) 여자의 正裝 중 唐衣가 여러 가지의 색상과 문양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摺染가 그 문양장식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4) 여자 略裝이 발달되어 있었고 특히 略裝의 表衣를 입지 않았을 경우 옷을 벗고 다닌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당시 예의범절이 중요시 하였다.

5) 僧服 및 喪服의 명칭들은 당시의 懷色の 유행과 불교의 정토사상의 영향 위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6) 옷 손질법으로 다듬질과 풀(糊)로서 광택을 내었고, 그 위에 金銀이나 靑貝 등으로 장식하기도 했으며, 中階를 이용한 가장자리 장식, 매듭을 이용한 치마나 주름 장식, 領巾의 사용, 湯卷을 통한 목욕 문화, 腰差를 통한 祿物의 패용 방법 등은 당시 복식문화의 멋을 나타낸 것들이다.

7) 머리 장식이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었고, 신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비올 때의 신, 우산, 우장 등을 구비하여 생활하였고, 笠과 蓑를 포함한 傘 종류가 비 눈 일광용으로 고루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선은 榮花物語라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나타난 복식만을 분석하였으므로, 平安 당시의 복식사회의 특징을 모두 분석해 낸 것은 아니며, 이는 차후 이미 연구되어 있는 일본복식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과 측면을 다양하게 가지면서 연구가 계속될 때 이미 연구되어 있는 일본복식사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복식 요소들이 究明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인의 시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후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요구되며, 榮花物語에서도 색채와 염색, 직물과 문양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榮花物語, 東京, 岩波書店, 1955.
- 源氏物語, 卷1-6, 東京, 小學館, 1982.

- 萩谷 朴 校主, 枕草子, 上下, 東京, 新潮社, 1994.
- 鈴木敬三, 有識故實圖典—服裝と故實—, 東京, 吉川弘文館, 1995.
- 黒板伸夫, 平安王朝の宮廷社會, 東京, 吉川弘文館, 1995.
- 猪熊兼繁, 古代の服飾, 東京, 至文堂, 1962
- 紫式部日記繪卷.
- 丹澤 巧, 服飾の中心にある美的感情, 東京, 源流社, 1990.
- 鷹司綸子, 服裝文化史, 東京, 朝倉書店, 1984.
- 近藤富枝, 服裝から見た源氏物語, 東京, 文化出版局, 1983.
- 河鱈實英, 井上. 章, 日本服飾美術史, 東京, 家政教育史, 1982.
-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平文社.
- 高橋健自, 歷世服飾圖說, 東京, 聚精堂, 1934.
- 青木英夫, 服裝史, 東京, 酒井書店, 1987.
-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1984.
- 元井 能, 日本被服文化史, 東京, 光生館, 1981.
- 山邊知行, 日本の服裝史における日韓の關係について, 韓國服飾7卷, 1989.
- 中山 昌, 文學にみる衣生活 シリーズ, 榮花物語の服飾, 衣生活107, 1976.
- 中川 孝, 十二單衣 復元, 實踐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 1983.
- 문광희, 韓·中 國領의 比較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문광희, 枕草子の 복식자료 연구, 복식 28호, 1996.
- 문광희, 源氏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1호, 1997.
- 新村 出 編, 廣辭苑, 東京, 岩波書店, 1980.
- 松村 明 外 2, 古語辭典, 東京, 旺文社, 1981.
- 服飾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1985.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Eigamonokatory(榮花物語)』

—On Clothing and Personal Ornaments—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Eigamonokatory(榮花物語)』. This book is a novel described the Royal Court from 883 till 1107. In this book, many kinds of Garments, Ornaments, Colors and Materials were mentioned. But in this paper, 69 kinds of Garments and Ornaments were reserched, and the rest will be reported in the next paper. The discoveries of this paper were as follows.

1. All the things of this book were reflections of the reality in Heian(平安) period.
2. The main styling of that period was a little bit soft but the straight silhouette were fashioned. In that time, Clothing had a special meaning and the manner for a fashion was very important.
3. In the female garments, Karakoromo(唐衣裳) were developed many kinds of patterns by dyeing method. especially the Surizome(摺染) was fashioned very much.
4. there were many kinds of gray tone like as clerical robe and mourning dress. This was the effection of Buddhism style.
5. The decoration of Fabrics and garments were usualized, for instance, smoothing and luster by beating and starch, sewing a piece of gold silver and shell, Nakabe(中陪) and knot bend. Shawl(領巾), Yumaki(湯卷) and Kosizasi(腰差) was a charming point of that time.
6. hair decoration, shose, parasol, rain coat etc. were developed and used frequently.

ABSTRACT